

공(空)이란 비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빈 과자상자나 혹은 풍선같은 것이다. 겉으로는 있는 듯하나 실제 내용물은 없는 그런 것. 겉으로는 잔뜩 부풀려 있으나 안은 공허한 그런 것이 공의 구상적 이미지이다.

### 한형조 무문관 탐방

세존의 채찍 ④

그렇다면 색즉시공(色卽是空)이란 다음과 같은 말이다. "이것이 공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아비달마가 공즉적 존재로 생각한 색(色) 즉 '물질'은 실재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다. 그런데 이어지는 공즉시색(空卽是色)은 또 무언가. 글자 그대로는 '실재가 아닌 것은 곧 물질이다?' 이것은 불가해한 언설이다. 공이 지금 명사 혹은 주어의 자격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그렇다. 공이란 품사적으로 한정어, 즉 특정한 실재를 형용하고 수식하는 묘사어로서 그 자체 실재성을 가질 수는 없어 보이는데... 이 어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림 · 문병성

노자의 무(無)가 그렇듯이 그것은 언어를 지우는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 공 앞에서는 어떤 언설도 미끄러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해제도 없었다. "칼날 위를 걷고, 얼음의 모서리를 달린다. 계단이나 사다리를 밟지 않고, 아득한 낭떠러지에서 잡은 손을 놓는다."

사람들은 이쯤에서 근본적 공공증을 토로한다. "세상에 어찌 높고 낮음이 있는가?"라고. 우리 내 중생들은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 갇혀 있다. 특히 근대 근대의 과학과 그 인식론에 침윤된 정신은 감각과 지각 너머의 마술적 정신적 영역을 일거에 내버렸다. 그러나 근대 이전 마술과 주술은 상식이었고, 영적 경험은 어느 문화나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불교는 세계를 단일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령, 삼계(三界), 즉 육

## 자신을 명확히 바라보라

우리는 모든 일상을 주목하며 바른 행동(정정진)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다. 왜 어려운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도 있다. 자신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 때때로 두려움, 외로움, 즐거움, 아름다운 일조, 기막힌 맛, 무시무시한 경험, 생로(生老), 밝음, 어두움, 감정의 오르내림 등 모든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 정정진 ②

이 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물연한 모든 변화"에 스스로를 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진은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수없이 강조해 왔다. 세간(世間)은 들뜬 곳이다. 전쟁과 편견이 있으며, 수많은 정치범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환락을 찾을 만큼 세간의 삶은 고(苦)다. 우리는 이 세간을 특수한 환경에서 고립된 슬럼가라면 생각할 뿐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인도 성인 니사르가다 마하라이

###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9



(Nisargadatta Maharaj)가 어느날 불배의 한 길을 걷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공손히 절하며 물었다. "우리는 중생류의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즉적으로 열을 수 있는 진실 혹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하라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 스스로를 열어놓고 일상행위를 깊이 주목 몸·마음에서 감정 몰아내야

"물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확신을 심어주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그것은 진실, 사랑, 조화로운 의식 등의 본성일 것이다.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고(苦)는 분명히 변화한다. 고통은 근본적으로 당신에게 '집중'을 요구하며, 조화와 사랑으로 향하도록 당신의 운동에너지가 자극한다. 에너지가 더욱 증가하면 할수록 당신의 깨달음은 깊어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으며,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결코 고(苦)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통에서 사랑을 낳을 수도 없다."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 불교와 수학

63

### 연기와 사회성

김용운

불교의 연기사상은 모든 현상의 여러 요소가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나타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회합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도 연기의 이(理)로써 설명된다.

인간이 만든 사회이지만 그것이 형성되면 그 안의 여러 제도, 습관 등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낱말의 인간의 행동 또한 사회성을 규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고립적으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 사실은 사회적인 행동을 취하는 개미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미를 한 두 마리씩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기면 처음엔 사들들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를 하나씩 늘리면서 어느 일정한 수에 도달하면 갑자기 전체적으로 통일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한 마리, 한 마리의 개미가 모여 사회가 만들어지면 사회가 낱말의 개미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낱말의 개미와 개미사회 전체 사이

에는 상호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두고 복잡성의 과학에서는 개미사회의 집단적 행동의 '자기조직화'라고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혼돈의 상황에서 스스로 질서와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창발(Emergent)이라고 한다. 물이 온도에서 수증기 또는 얼음으로 변하는 것도 그 보기이다. 개미가 일정한 수에 이르면 자기조직화가 창발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인간의 마을, 기업, 사

는 생명의지가 발동하여 집단으로서의 생명의지를 갖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개체의지의 산술적인 총합이 아니며 자기조직화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생명의지가 창발되는 것이다. 많은 구성원을 지니는 기업, 사회,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번영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쇠퇴해 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역사는 그런 기록으로 가득차 있다. 위기가 몰아닥칠 때 구성원들이 자각하여 조직에 새로운 생명의지가 일어나 활력이 창발된다. 로마가 쇠퇴기에 돌입했을 때 오

시고 내뿜기를 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승결 하나 하나에 몰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즐거움, 권태로움, 즐거움 등의 감정이 교차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살펴야 한다. 이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강인한 수행력을 기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마하시(Mahasi) 사원의 수행법이다. 이것은 하루 15~18시간 정도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앉아서 혹은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다. 오직 4시간의 잠을 허락하고 소량의 음식만을 섭취하게 하는 이 사원의 수행에서 강조하는 것은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과 같이 놓치지 쉬운 행동조차 깊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가?"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도록 한다. 이 같은 물음의 대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더러움, 욕망,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다.

이 두 수행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것 등을 통해 집중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 세계가 실질적임을 느끼는 감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깊이 주목해 주변의 유·무정물과의 관계성을 지켜보고, 사실성(性)과 거짓성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uu@buddhapa.com)

## “어떤 답도 깨달음 표현 못해”

### 실상을 알려면 '비어있음' 체험해야

부정적 한정어를 선호한다. 같은 고민을 노자도 했다. 노자도 그 아득한 현자우현(玄之又玄)의 실재를 일상의 이원적 한정어로 그럴 수 없어 '역지(道)도(道)니 무(無)니로 부른다'고 했다.

왜 '역지(道)도(道)니 무(無)니로 부른다'고 했을까. 우리는 외제를 감각하는 지각과 그것을 통합하고 유추하는 이성을 갖고 있다. 또 그런 경험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유효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세련되고 거친 차이는 있었지만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세계와 경험을 기술하는 적극적인 언사를 발굴하고 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대학입시 논술고사도 그런 확신의 산물이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노력을 큰 소리로 비웃는다. 낮은 차원의 세계에서는 몰라도 공의 세계에서 언어는 불발하고 때로는 위험한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차원의 영적 세계를 기술하는 '적절한' 언어는 없다! 우리가 공유하는 언어는 감각적 지각과 언사를 발굴하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형성되고 통용되는 수단이다.

애초에 제기한 질문을 기억하는가. 외도는 세존계 '일일됨과 말없음 너머의 소식', 즉 우리의 일상적 경험의 본원된 세계를 벗어난 루치의 정신적 세계를 단도직입적으로 뚫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응답했다.

계(欲界)와 색계(色界)와 무색계(無色界)가 그것이다. 학파마다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불교는 감각과 욕망의 세계 너머에 정신적 세계, 보살과 부처들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전한다.

고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자아와 타자, 하나와 여러 사이의 이원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이 사라지고, 그와 연관되어 있던 물질적 대상도 사라지고, 그와 함께 그에 의지하고 있던 자아 혹은 인격도 사라진다. 여기서는 말없음과 말없음이 동시에 무의미해지고 만다.

이 세계의 실상을 알고 싶은 사람은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린 화엄(華嚴)의 바다에 들어가 보기를 권한다. 번거롭다면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의 난해한 변종이라도 음미해보기를 권한다.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초월적이면서 또한 내재적인 그 오묘막측의 세계를, 그 통합과 원용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은 여전히 자아의 소멸 즉 무아(無我)이다. 그래서 공(空)이다. 존재하는 것은 부풀린 오온(五蘊)뿐, 그것을 통괄하는 중심으로서의 자아 혹은 인격은 여전히 '비어있음' 인간은 그 자신에게 속한 바를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못하는 거지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건·강·보·조·식·품·허·가

### 몸을 다스리는 (治身)

###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 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 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 둘째 부(富: 부와 귀), 셋째 장녕(康寧: 편안함), 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 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중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까)와 감식초 10여종의 첨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불로화정**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 (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신에 사는 사람의 신선(仙人)의 주식(主食)은 시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늘리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애오래도 불을 생(生)하기(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 五行의 木)의 나린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시절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얻은 여러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사 소나무염증정(藥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정(藥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배방·솔미다·솔화기루·솔진·솔근백과·솔목피·솔이버섯·백령령·적령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물이려의 조순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삼·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분미 에너지를 비롯하여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낮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흰 밀도 들어감이 없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이다.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의 특이 당노병에 효력이 있으며 담뱃 피를 끊어주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예정이다.

### 솔효소정액 (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동특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 솔선식 (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동특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대구여래원